

춘원 이광수의 근대희곡 "규한 (規韓)"에 나타난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현대한국사회의 새로운 가족관계

김창화 (상명대연극학과 교수)

목차

- 1. 서론
- 2. 사회환경의 변화
- 3. 자기정체성과 가족관계
- 4. 가족관계의 이탈과 자기정체성의 상실
- 5. 결론
- 참고문헌

1. 서론

한국최초의 근대희곡으로 구분되는 춘원 이광수의 희곡 "규한"에는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가족안에서의 여성의 입장과 삶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작품에는 당시 여성들이 '사랑과 가족'이라는 이중적인 가치관을 여성 개인의 삶에 어떻게 수용해야 할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한국의 여성들은 교육받은 '신여성'과 교육받지 못한 '전통적인 여성'으로 구분되어, 전자가 매우 개방적이며, 진취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반해, 후자의 여성들은 당시의 이념과 규율에 어마어마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당시의 가족관과 여성의 존재에 관한 시대적 의미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1910년대 후반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서구적 가치관이 당시 한국 여성의 '고전적 체성'에 대한 반발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서서히 조금씩 진화했으며,

당시의 보편적인 여성들이 당면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과 대안 의 방식으로 등장한 여성의 새로운 '자아정체성'은 문학과 예술, 신여성들의 다양한 사회활동 등을 통해 사회 각 계층에서 다양한 모습과 층위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렇듯 계급별 사회여러 분야의 사람들로 부터 주목받았던 '신여성'의 사회적 활동과 '예술적 표현'과는 달리, 그동안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로 배일에 가려져 있던 당시 한국 여성의 보편적이며 서도 전통적인 가치관과 개인의 존재를 초월한 거대 가족의 구성원으로서의 '메타가족'인 춘원 이광수의 희곡 "규한"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21세기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의 한국사회의 '새로운 가족관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볼 만 한 연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1. 지금까진 조일재의 "병자삼인"이 한국최초의 근대적 희곡으로 알려져 있으나, 최근 "병자삼인"이 일본희극의 변안임이 확인되면서 이광수의 "규한"이 최초의 근대적 희곡으로 평가받게 되었다.

따라서 보면 근대 한국인의 전통적인 가족관과 현대의 가족관이 어떻게 변해왔으며, 어떤 변화의 요인이 있었는지 연구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난

100년간의 사회적 환경의 변화와 정치, 경제, 종교, 사회문화의 변동요인과 가족관계의 변화를 함께 비교해보고자 합니다.

춘원(春園) 이광수(李光燾는 1892년 3월 4일 평북정주(定州)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1950년 남북통일 때까지 소설·논설·평론·좌담·작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가로 활약했지만, 1937년 수양동우회(修養同友會) 사건을 계기로 친일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39년에는 조선문인협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가야마미쓰로(香山以良)로 창씨개명을 했습니다. 친일 활동에도 불구하고, 이광수는 한국 근대 문학사에서 손꼽히는 중요한 작가입니다. 1917년 『매일신보』에 연재된 현대적 장편 소설 “무정”은 이듬해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무려 1만부가 팔린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외에도 “유정” (1933), “사랑” (1939), “흙” (1932), “단종애사” (1929) 등의 소설이 주요작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규한” (1917)과 “순교자” (1920)는 그의 유일한 한국 작품으로 꼽힙니다. 이중 “규한”은 한국 근대 문학사의 첫 장을 여는 본격적 한국어로 펴낸 작품으로 1917년 『학지광』 1월호에 발표되었습니다.

“규한”은 시골 어부 자식의 안방을 배경으로 초월담에 이르는 사건의 흐름을 담고 있습니다. 모두 8명의 등장 인물로 세 위계로 구성된 이 작품은 전통적인 문예의 불합치성을 성취한 작품입니다. 작가는 전근대적 이교다분히 오직 논리에 압도된 조혼제도의 맹점을 신랄하게 비판함으로써 당시 젊은이층에 팽배했던 자유연애사상을 옹호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실제 이광수 또한 1911년 한살연하의 백혜순(白惠順)과 초혼을 했지만, 일본 유학 시절(와세다 대학 철학과) 허영숙을 만나면서 1918년 백씨와 이혼하게 됩니다. 이는 “규한”에서 김의관의 아들 롱장하는 동경 유학생 영준과 그의 처이씨(李氏)의 사랑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부모님의 의사에 따라 강제로 성사된 영준과 이씨의 부부관계는, 어느 날 동경에서 편지 한 통으로 갈등 국면 에 돌입합니다. 영준은 이씨와의 결혼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된 것 이므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이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끈질기게 애써져서 소리칠라고 피를 토하는 등 정신병 증상을 보입니다. 이씨는 남편의 입장과 달리 시대식구들과 살며 서로 지남편이 귀국하는 날만 기다리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녀의 입장에서 이혼이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불가능한 처사입니다. 기존의 전통적 제도에 저항하는 영준과 미처 버린 이씨 앞에서의 갈등은 어느 누구도 옳고 그름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듯 근대적 희극에 나타난 가족관계는 21세기 한국의 현대 사회와는 완전히 다른 가족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우선 첫 번째로는 결혼에 대한 무관심 혹은 결혼이라는 가부장적 제도에 대한 반발과 부정의 형태를 언급해 볼 수 있으며 다음으로는 가족의 해체와 독립된 가족 구성, 가족 간의 심각한 갈등과 투쟁의 양상을 지적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대 한국 희극에 나타난 여성의 사회적 입장과의 환경이 21세기 한국 사회에서는 크게 달라졌다는 것과 21세기 한국 사회의 사회적 가치관이 100년 전 한국 사회와 크게 변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면 근대 지난 100년간 한국 사회가 얼마나 극단적인 변화와 변형의 형태를 이루어왔는지 ‘가족관계’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사회의 사회적 변화와 연관성이 있으며 한국인의 가치관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기도 합니다.

2. 사회 환경의 변화

후기 산업 사회에 들어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식, 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라, 보다 더 좋은 교육 제도의 문제, 만족할 만한 주거의 문제, 생존에 적합한 자연 환경에 대한 요구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사소한 사회적 정서이며, 고대로부터 계속되어 오면서 인간 가장 근원적인 사회성을 배워와 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능적 욕구나 사회적 절차와 규약에 의해 얻어 제나 제약받았고, 그로인한 불만과 갈등의 형태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2002년 한국의 정치는 정치적 보수집단으로 알려진 기성 세대에서 나이가 훨씬 어린 젊은 세대가 계층의 정치 참여와 지지 기반이 확대되면서, '정치문화'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보수적 기득권 계층 대신에 새로운 진보적 계층이 정치의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새로운 정치 사회의식이 이러한 가치관이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상하구조를 형성하던 '연령에 따른' 사회적 지배체제와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으로 통용되던 '연령에 따른 존경심'이 없어지면서, 이른바 연령에 따른 상하의 계급적 개념에서,

이념과 '가치체계'로 '적'과 '동지'가 구분되는, 이념적 집단의 형성과 세대간의 갈등,

층들이 보편적 사회현상으로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에서는 르네상스 이후 인문주의에 바탕을 둔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개인과 사회적 집단과의 구분은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19세기부터는 자본과 노동의 갈등이 사회적 분배의 측면에서 급진적인 대립의 축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절대적 왕권 이 비교적으 오랫동안 유지되었던 아시아 지역에서는 지배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갈등, 남자와 여자의 사회적 역할에 따른 대립,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가치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사회적 양분화가 심각해지면서 이른바 근대에서 현대로 전이하는 과도기적 단계의 경계선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고, 그래서 모더니즘의 시대가 매우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포스트모더니즘은 모더니즘의 연속적인 지점에 위치하는 듯하여,

근본이 분명하지 않았고,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관과 현실적인 대안이 공존하는 이른바 사회적 복합구조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발전과 효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더니즘의 사회적 윤리는 생산적인 인간의 모습에 보다 더 긍정적인 가치관을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모더니즘 시대의 인간들은, 일에 대한 관심도 높았고, 일에 대한 결과와 인정이나 자존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기기 시작하는 포스트모더니즘 시대가 지속되면서 개인의 일에 대한 요구를 충족하기 어려운 사회적 현상이 조성되었고,

수요와 공급간의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급속하게 증가하는 사회적 잉여 가치와 노동시간의 절대적 축소,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한 노동시장의 진입 장벽,

에너지와 자원의 고갈에 따른 위협, 지속적인 성장에 위대한 새로운 노동조건과 사회적 환경.

이런 모든 문제가 밀려오면서 살아가는 '노동중심의 가치관'을 지니고 살았던 모더니즘 세대와는 달리,

개인의 즐거움에 노동의 가치로 획득되는 즐거움보다 우선적인 포스트모더니즘 세대의 노동에 대한 입장이 여가 생활과 구분되면서,

이른바 '노동'과 '여가생활'의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더구나 21세기의 사회적 변화는 노동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에 의해,

'여가생활'을 늘려야 하고,

노동시장의 수요와 '여가생활'의 공급이 균형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노동시장과 여가생활의 향유가 이른바 '상이한 사회계층' 간의 사회적 배려와 협

업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노동시장과 '여가생활'의 관계가 소득과 분배라는 측면에서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춘천 이광수의 희곡 "규한"에는 21세기의 며느리인 '이씨'와 '이씨'와 친분이 있는

22세의 젊은이인 '최씨'가 이른 겨울날 밤에 밤을 지낼하면서 극이 시작됩니다.

당시 부유한 계층의 며느리인 '이씨'가 밤을 지낼하는 것은 여성으로서의 마땅한 노동이며,

노동의 결과로써 대가를 기대하기 위함이 아니라 남편의 뜻을 직접 만들어 입히기 위한 열정에서 비롯하자 발적인 노력인 것입니다. 즉

100년 전 한국의 부인들이 거대 부분 남편의 뜻을 직접 만드는 사람의 도임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종류의 '가내수공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씨'의 시누이인 '순옥'도 '이씨'와 '최씨'결에서 수를 놓았는데, 당시에는 수를 놓는 처녀는 집값을 갈수록 높았으며,

결혼 전 여자들이 익혀야 할 필수수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수를 놓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런 종류의 '신부수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당시 여성들이 남편과 가족을 위해 해야 할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종교적 의무감으로서의 '백일기도' 일 것입니다. 부인이 남편을 위해,

가족을 위해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해 해서는 '백일기도'는 종교적인 행위이며 동시에 남편과 가족을 위해 노력하는 여성의 '자기의무'이자 동시에 침묵으로

전해지는 '의사표현'의 방식인 것입니다. 이런 의사표현 방식은 당시 여성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자신의 열 마음을 담아, 기원하는 보편적인 장치로서 '백일기도'를 활용하였으며, 보다 우회적이고,

간접적인 자기표현의 방식으로 '백일기도'의 형식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씨 왜 그래요. 집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걸려서 그런 게 오래인가요.
 저우영씨 시누이도 남편 돌아오라고 백일기도를 하더니 지난 달에 돌아왔는데요.
 최씨 그래 형님도 백일기도를 시작하십니까? 동경 계신 어른께서 돌아오시라고?
 이씨 호호. 호호.
 최씨, 순옥 백일기도를 벌써 절반이나 하세요.
 이씨 (순옥더러) 여보, 누이님으로서 백서방님 만나게 하 여다라고 백일기도나 하시오.
 순옥 (몸을 핏돌리며) 형님도 당신께서 기도하시니까. 내오빠한테 "형님께서 오빠
 돌아오시라고 백일기도를 하니까. 어서 바빠 돌아오소서." 하고 편지하십니까?
 최씨 응, 순옥씨 그러시오. 내일 편지 하십시오.
 노파 (들어오며) 이방에서 왜 백일기도 소리가 이렇게 나나. 옹지, 남편 머리보내
 양반들이 모여 앉아서 남편 돌아오라는 기도통을 하나 보군.
 최씨 아니입니다. 이순옥씨가 어서 백서방님 보게 하 여다라고 백일기도를 하답니다.
 노파 백서방님 이제 한 달만 지나면 볼터인데. 백일이 차게 되면. 이십구일 기도나 하지 그래.

위에 인용한 "규한" 의 한 장면에서 '이씨'는 여 집부인이 백일기도를 통해 남편이 돌아와 달라는 사실을 매우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일 때,

시누이 '순옥'에게도 백일기도를 추천합니다.

이에 대한 반응으로 '순옥'은 자신이 오빠인 '이씨'의 남편에게 지금 '새어니'가 백일기도를 드리고 있으니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라는 편지를 써

야 할 것이지만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뒤늦게 모임에 합류한 결혼동맹인 '노파'는 남편을 멀리 떠나보낸 '이씨'와 '최씨'의 백일기도에 관한 언급은 바로 남편에 대한 부인들의

그리움과 남편의 귀향을 희망하는 메시지가 있음을 알아차리고, '순옥'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런 게 백일기도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의 방식이며, 동시에 '규방'에 갇힌 여인들이 외부 세계를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자신의 '욕구'인 것입니다.

춘원 이광수의 희극 "규한"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열악합니다.

희극에 표현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당시 배우지 못한 여성의 입장으로서 남편이 얼마나 불안했는지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이씨차타고보름이나가면하늘보는데게지요?
 순옥예고, 형님! 지리도못배우셨나봐! 땅덩이가동그렇지않잖아?
 이씨우리야학교에들다녀야하지.
 최씨참, 우리학교에나좀다녀오면! 집에오면누워서하고그러면서공부를 하라고하지마는, 글씨이제어떻게공부할하겠소.
 이씨참그래요. 저도바나편지로공부해라! 공부해라하지마는어느틈에공부를 하게십니까. 또성취감이있다면가르쳐주는선생이이여야지요.
 최씨너무무식하다. 무식하다하니깐집에들어와도만나기가무서워요. 서울이라곤 일본이랑다니면서서공부하던데무슨말씀하는것이나없을까하고그저잠시도마냥을때가없어요.
 이씨그래도백선생께서우리보다는좀성미가부드러우시고다정하신가. 뵈니다만우리너무성미가급해서조금이라도맘에들린일이있으면눈물범벅되고 “예고, 저것도사람인가” 하니깐차라리이러구게멀리떠나있는것이속이편해요. (하고눈을씻는다)

‘순옥’ 과 ‘이씨’ 의나이가차이없을것같지만, ‘이씨’ 는학교교육을전혀받지않았고, ‘순옥’ 은학교에서공부한 ‘신여성’ 입니다. 당시한국사회는전통적인가치관을유지하고이른보수적인계층과진보적인계층으로양분되면서, 여성의학교교육이매우중요한화두로떠오르기시작했습니다.

특히 “규한” 에등장하는 ‘이씨’ 와 ‘최씨’ 의나이를다들아보고독일에서유학하고있는진보적인지식인으로, 자신들의부인이교육받지못한보수적인계층의여성이라는점에서등등한여성의권리인정하기어려운입장이었습니다.

특히 ‘이씨’ 의남편인 ‘김의관’ 의아들 ‘영준’ 은 ‘이씨’ 를노골적으로홀대한것입니다. 결국 ‘영준’ 이 ‘이씨’ 에게이혼요구하면서, ‘이씨’ 는미처버려제된것이이히곡의결말이며, 당시배우지못한여성인 ‘이씨’ 와같은대부분의한국여성들이당하게되는수모이자운명이었던것입니다. 이런계교육의효과가극단적으로높아진당대의분위기와 리세기교육의평준화가이루어진한국사회에서의여성의사회적입장과역할은매우달라졌습니다.

리세기한국사회에서이혼은매우심각한사회문제가되었습니다. 그러나 100년전한국사회에서의이혼여성에게는곧 ‘죽음’ 그자체였습니다.

노파아무죄도없는것은부부의명령이아니복종한다는죄로동년여름에이혼할때. 그래서그새새시가올면서친정에쫓겨갔더니, 그새새시의어머니가분이나서 머리를들어헤치고김떡네집에와서사흘이나와와쳐올면서내내말을조여나고야를하엿습니다. 그러면그가어디있겠소.
 이씨나같은죽고말지, 왜친정에들어가?
 노파그렇지않아. 참새새시도올예빠질라는데는가별들어서살아나다는데.

이작품에서 ‘이씨’ 는이혼을당하지만, 시집부모니더명예복종하지않기에쫓겨나거나아니었습니다. 그러나당시에는시집간여성이지집살이로모견다면, 쫓겨나고, 쫓겨난여인은 ‘죽은여인’ 과다름없는대접을받았던것입니다. 이렇게 1910년대후반한국사회에서여성들은 ‘백일기도’ 라는종교적행위를통해서만자신들의엄언을표현할수있었고, 결혼이란여성개인의삶을규정하는최고의안식처이자보호장이었던것입니다.

3. 자기정체성과가족관계

1910년대한국에서의결혼은개인의선택에의해이루어지는것이아니라,
 가족과가족간의결정으로이루어지는이른바 ‘가문과가문간의약속’ 이라는형태의 ‘계약혼인’ 이었던것입니다.
 따라서개인의자유 의사나자기정체성에관한질문은첨부터배제된상태였습니다. 개인의선택에의한결혼은아니지만,
 결혼이라는제도는순종할수밖에없었던당시여성들의입장과는달리, 개인의권리와자유가보장되는이른바새로운 ‘문명세계’ 를경험한남성,
 이른바가족의중심적인구성원으로서의남편은근시대적인결혼의방식과조건,
 가족이라는환경과새로운문명과시대정신을경험할수있는 ‘신세계’ 에서새로운조건외의 ‘신여성’ 을만나게되고,
 근시대를대변하는 ‘아내’ 라는부속물에대한 ‘도피’ 를꿈꾸게됩니다.
 즉자신의의사와상관없이이루어진결혼은무효라는주장을하게되는것입니다.

1910년대한국사회에서결혼이라는형식은자기정체성을무시하고,
 새로운가족관계를구성하기위한근거필요에의해이루어진 ‘사회적약속’ 이었다면,
 그약속을지켜야만하는쪽과약속의구속력에서벗어나고자하는쪽의갈등이바로당시전통적인가족관계가부다쳐야만했던 ‘위기’ 였던것입니다.
 이러한위기의식에서어제나승리자는남성이었으며, 여성은영원한패자이며, 동시에희생자였던것입니다.

최씨 (편지를들고) 이때나들이점점초여가는데양당모시고몸이어평안하시나이까. 이گونه편안하지나오니염려마시옵소서. 그대와나와서로만난지이
 미오년이라. 그때에그대는십칠세요, 나는십삼세라. 자, 나똥은또왜와나오. 나는십삼세라. 그때에나와나내가무엇인지도모르곤인
 미우어인지도몰
 랐나니, 내가그대와부부가되오내자유 의사로한것이아니오.
이씨 자유 의사 가무엇이여요.
최씨 나도모르겠습니다. 평생편지에는모르느소리만쓰기를좋아하거다. 자유 의사로한것이아니오, 전려부모의강제. 강제, 강제, 강제로한것이니, 이행위는실로
 법률상에아무효력이없는것이라.
이씨 그게무슨말이여요?
최씨 글썽요, 보아가노라하면알게지.
노파 (응하고입맛을다시며들아안는다) 응, 응.
최씨 아무효력이없는것이라. 지금명한세상에강제로한이시니범이어나니오리의결혼행위는다양히무효하게될것이라. 이는내가그대를미워하여그림이아니라
 실로법률이이러함이니, 이로부터그대는나를지아비로알지말라. 나도그대를나내로알지아니할터이니이로부터서로자유 의몸이되어그대는그대갈데로갈지어다.
 나는. 아, 이게무슨편지야요! (하고중도에편지를놓는다)

혼인등사람의 ‘자유 의사’ 에의해이루어져야하는것이란남편의주장과오직지아비만을섬기고살아오여인의입장이극명하게대립되는이장
 면에서, 새로운전이를중매하고자한 ‘노파’ 는 ‘입맛을다시며’ 돌아왔는행위를통해,
 이미이런 ‘파국’ 을짐작이나했던것처럼반아들이고있습니다. 이 ‘노파’ 의방응통해,
 당시이런 ‘파국’ 은매우주조일어나는 ‘파국’ 이었고, 어쩌면당시사회의보편적인문제가되었던것입니다.
 그래서결혼이라는제도가치나치게이습적이고,
 개인의의사를클루시한 ‘강제성’ 이우선적이었던비판적관점이라당시새롭게등장하기시작한개인의 ‘새로운사회적정체성’ 이었던것
 입니다.

고잠아먹고싶어하옵스시오. 지난여름에집에돌아왔을때에도나와안말하마디아니하고, 내방에라곤발길도아니들놓았답니다. 그런것을올까지혼자참아오느라고얼마나가슴이아프고쓰려겠습니까. 죽고싶은때도한두번이아니거만은시부모님의정에끌려서여태꺼참아왔어요. 남들같은설움때에친정어머니한테나가서시원히진정이나하련만은, 나쁜어머니도일찍돌아가시고 그래도행여나마음이돌아설까돌아설까하고기다렸더니, 이제는이끌이되고말았습니다그려. (하고학늑늑다)

최씨어머니께서안게세요?

이씨제가네살전에제등생들남시고오래오래다가돌아가셨답니다. 그후에도사나운게모님손에길러지다가시집이나가면좀나를보고살까하고어린생각에도하루바빠시집가기를기다렸더니, 정작시집오던에는친정어이웃보다더어떻게괴로운지모르겠어요.

최씨저런, 참!

이씨세상이무정해요. 저예수민은마누라가세상은죄악에찬지옥이라하더니

정말입니다. 이세상에서누구를믿고누구를의지하겠소. 나쁜남편을제보다더중히여겨서밤잠을잠자면서웃을지어드리고반찬한가지라도맛나게하려하고, 흑남편의몸이좀달더라도서운마음이생겨서술안에도아가서

복도칠성개기도를몇번이나하옵는지모르겠습니다. 사랑에서평생몸이

약하여겨울에는사할거니옵지요. 앞을때마다나쁜치마고름도아니쁘르고바람새웁니다그려. 그렇거만그보응이이러습니다그려. (하고최씨의가슴에머리틀비비며목울음을아우다)

이렇 게가족관계는자기정체성과밀접한관계가있으며, 가족관계와자기정체성의관계는

100년전의한국사회와오늘날의사회에똑같이적용되는문제이자가치관인 것입니다.

5. 결론

21세기한국사회의가족관계는가족의성립과정, 역할, 권력, 의사소통, 가족생활의만족도, 상호작용,

가족문제와가족책임이라는다양한층위의문제점을내포하고있습니다.²이렇 게다양한관점들을제시할수있는 ‘가족학’ 에관한연구는

21세기들어서면서새로운연구주체인민족의정통성에대한문제제기와더불어 100년민족과국가에대한우리의인식이

21세기들어서면서민족과젠더에대한관점의변화와함께다양한층위의논의가이루어지고있습니다.³

‘정체성’ 과관련된논의가운데

21세기한국사회에있어서여성의 ‘가족관계’ 와관련된 ‘정체성’ 논의는여성의사회적자의식과 ‘평등’ ,

‘차이’ 에따른사회적적응과기능이라는측면에서 100년전여성의사회적정체성과구분됩니다.

특히여성의 ‘가족관계’ 에대한해방과자의적이고주도적인관계망형성으로인하여

100년여성들보다오늘날의여성들은 ‘가족관계’ 에있어서보다더자유로운시각과관점을지니게되었습니다.

이렇 게결혼이라는제도의변화와더불어가족관계의변화가지난 100년간의한국사회에서크게달라진요인으로서사회환경의변화와종교, 정치,

경제의변화와더불어여성스스로의 ‘자기정체성’ 확립도큰몫을차지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사회적모순과불만을해결할기회방법으로 ‘개인의문제’ 에집중했던시각과는달리,

주변환경의변화가개인의미래에대한 ‘의사결정의방식’ 에변화를줄수있었던경우가생겨난것입니다.

2가족학, 한국가족관계학회, 서울 夏雨 1999

3정체성, 고스기야시외, 황영식번역, 한울, 2007

그래서 자연의 순환구조처럼 생각해왔던 결혼과 가족관계를 ‘기능과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되돌아보는 지혜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기위해 상대방을 낮추고, 나를 높여주는 상대방을 인정하는 시소게임처럼

리세기의 가족관계는 개인과 가족의 순환적이고 동시에 보완적인 관계를 잘 유지해나갈 때 그 균형이 잡히고, 관계의 조화로움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문헌

- 규한, 이광수, 학지과 1월호, 1917
 병자삼인, 조일재, 1912
 가족학, 한국가족관계학회, 서울 夏雨 1999
 정채성, 고스기야스시외, 황영식번역, 한글, 2007
 가족과사회복지, 양옥경,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5
 가족관계론, 김익근, 정민사, 2012
 현대가족관계론, 이기숙외, 파란마음, 2009
 의사소통과가족관계, Galvin, Kathleen M, 이재연역, 서울형설출판사, 1990